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66호 【루게 제24579호】 주제 103 (2014)년 6월 15일 (일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사설

6.15의 기치높이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자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업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유훈을 받들어 겨레의 세계적승리를 성취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위업이다.

6.15공동선언발표 14돐을 맞이한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자주통일에 대한 환희와 격정으로 뒤흔어지던 력사의 그 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주제 89(2000)년 6월 평양에서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북남 수뇌상봉이 마련되고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된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사변이었다.

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대결의 장막이 질게 드리웠던 이 땅에 격동적인 6.15통일시대의 희망찬 아침이 밝아왔다. 이전에는 상상할수 없었던 북남관계의 사변적사들과 우리 겨레는 돌이 되면 꽃이 하나이라는 세계에 보여준 통일사적인 현실, 자주통일, 평화변영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한 10.4선언의 채택도 뜻깊은 6.15와 잇닿아있다. 6.15통일시대는 우리 민족사에 자주와 단합의 큰 자욱을 남기었으며 겨레의 심장마다에 꺼질줄 모르는 통일애국의 불씨를 심어주었다.

6.15공동선언은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자주통일의 이정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통일의 주제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끼리의 힘에 철저히 설 때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 근본핵은 우리민족끼리였다. 우리 민족끼리는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의 단합된 힘을 토대로 변영을 안아올 의지를 북돋아준 새 세기 조국통일운동의 기틀이름이다. 온 겨레의 심장을 틀어잡는 우리민족끼리념으로 그들

의 가슴속에 불타는 애국심을 폭발시키고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애국위업의 힘찬 전진을 추동한 바로 여기에 6.15공동선언의 생명력이 있다. 지나온 14년간을 돌이켜보는 이 시각 우리 민족은 6.15통일시대 가 얼마나 좋았으며 공동선언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것을 더욱 뼈저리게 절감하고있다.

6.15공동선언은 분열의 비극속에 더이상 속된오로가 아니라 머지않아 도래할 밝은 미래이라는 확신을 안겨준 희망의 포대이다.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우리 민족끼리는 유일무이한 애국리념으로, 시대정신으로 겨레의 가슴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사는 곳마다에서 민족중시, 민족공조의 거센 흐름이 이어지는 속에 동족대결구도는 전체 조선 민족 대 미국의 구도로 전환되었다. 평양과 서울, 금강산 등에서 6.15와 8.15를 맞으며 성대히 진행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과 부산, 대구를 들다같은 《우리는 하나이다!》의 합성, 불같은 통일열기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시키었다. 6.15 민족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조국통일운동은 전민적폭발로 확대강화되었다. 지난해 대립과 의견상반을 보여준 북남대화가 6.15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공동의 방도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의의있는 대화, 북남관계개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구대를 벗어던진 진정한 대화로 발전하였다. 반세기이상이나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들이 이어지고 하늘길, 바다길이 열렸다. 6.15통일시대의 성과들과 고귀한 전승은 오늘도 해외의 온 겨레에게 우리 민족끼리의 링장에 설 때 북남관계와 통일문제에서 해결못할것이 없으며 우리 민족은 얼마든지 대결의 장벽을 허물고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철의 진리로 새겨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6.15통일시대의 개척자이시고 령도자이시다. 전체 조선민족을 조국통일의 주체로 내세우시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는 분

렬의 고통속에 몸부림치는 이 땅에 6.15통일시대를 안아왔다. 민족분열의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시려는 절세위인의 애국적의 대용담과 넓은 도량과 드넓지 않는 무비의 담력은 온 민족에게 조국통일위업의 빛나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었다.

6.15공동선언은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반통일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을 동반하였다. 공동선언들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피뢰당국의 책동은 집요하고 악랄하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반통일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을 동반하였다. 공동선언들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피뢰당국의 책동은 집요하고 악랄하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반통일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을 동반하였다. 공동선언들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피뢰당국의 책동은 집요하고 악랄하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반통일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을 동반하였다. 공동선언들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피뢰당국의 책동은 집요하고 악랄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겨레의 념원이 담긴 북남관계를 더욱 활력있게 발전시켜 평화와 민족공동의 변영을 이룩하고 부강한 통일강국을 기어 이 앞세우실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안고서 2007(2007)년 10월 또다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어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우리 민족에게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을 마련해주시고 우리 민족끼리의 세대대, 6.15통일시대를 열어준 분렬의 민족자적공적과 조국통일을 위해 바쳐온 애국애족의 로고와 헌신은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오늘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조국통일위업의 진두에는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이시며 전체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온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온 겨레를 통일애국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조국통일의 구심기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투철한 민족자유의 리행을 전진거부하여 대결시대를 되살린 리명박(정권)에 이어 현 피뢰당국도 공동선언에 배치되게 외세 의존과 동족대결을 추구하면서 범죄적인 령도의 손길이며 금강산관광사업이 활력있게 추진되고 개성공업지구기 열매는것과 같은 격동적인 사변들이 연이어 일었다. 위대한 단결과 화해와 공조하여 북남관계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며 부단히 발전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을 전민적폭발로 확대강화되고 있다. 《신뢰》와 《협력》을 운운하면서 도 실제에 있어서는 반공화국책동과 《의견》과 《협력》을 운운하여 되풀이되고 있으며 우리의 병진로선까지 결고들면서 체제대결을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올해에만도 북남사이에서 비방중상과 사상적대행위를 증시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해나갈데 불을 마련하시어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우리 민족에게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겨레의 념원이 담긴 북남관계를 더욱 활력있게 발전시켜 평화와 민족공동의 변영을 이룩하고 부강한 통일강국을 기어 이 앞세우실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안고서 2007(2007)년 10월 또다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어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우리 민족에게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겨레의 념원이 담긴 북남관계를 더욱 활력있게 발전시켜 평화와 민족공동의 변영을 이룩하고 부강한 통일강국을 기어 이 앞세우실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안고서 2007(2007)년 10월 또다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어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우리 민족에게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겨레의 념원이 담긴 북남관계를 더욱 활력있게 발전시켜 평화와 민족공동의 변영을 이룩하고 부강한 통일강국을 기어 이 앞세우실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안고서 2007(2007)년 10월 또다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어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우리 민족에게 안겨주시었다.

피뢰당국의 위협침만한 망동은 온 민족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커다란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환희로 들끓었던 6.15통일시대와 불신과 대결의 맹기가 서리고 긴장적화와 전쟁의 검은구름이 질게 드리리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었다.

6.15공동선언은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반통일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을 동반하였다. 공동선언들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피뢰당국의 책동은 집요하고 악랄하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반통일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을 동반하였다. 공동선언들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피뢰당국의 책동은 집요하고 악랄하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반통일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을 동반하였다. 공동선언들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피뢰당국의 책동은 집요하고 악랄하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반통일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을 동반하였다. 공동선언들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피뢰당국의 책동은 집요하고 악랄하다.

따라 추호의 양보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곧바로 나가는데 우리 민족성원들의 참다운 애국의 힘이 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하는것은 북남관계의 파국을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 민족공동의 변영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전제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링장에는 변함이 없다. 온 겨레는 공동선언들을 말살하려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추호도 용납치 말고 개선의 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6.15가 소중한 감동되어있는것을 말해준다.

시간의 요구와 겨레의 지향은 민족을 등진 반통일세력들의 통략들이 될수 없으며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에 나아가는 력사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도 가로막을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조국통일의 기치로 변형하여 높이 추켜들고 힘찬 의지와 함께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침전정책등에 날이 갈수록 기세를 부리고있다. 피뢰당국은 유혹을 만들어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새 국면을 열어와야 한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필생의 념원이며 간곡한 유훈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는 길에서 이룩하신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민족에게 남긴 고귀한 유산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제시하신 민족자주사상과 대안대로 실천하는 길에서 이룩하신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민족에게 남긴 고귀한 유산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제시하신 민족자주사상과 대안대로 실천하는 길에서 이룩하신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민족에게 남긴 고귀한 유산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제시하신 민족자주사상과 대안대로 실천하는 길에서 이룩하신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민족에게 남긴 고귀한 유산이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필생의 념원이며 간곡한 유훈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는 길에서 이룩하신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민족에게 남긴 고귀한 유산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제시하신 민족자주사상과 대안대로 실천하는 길에서 이룩하신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민족에게 남긴 고귀한 유산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제시하신 민족자주사상과 대안대로 실천하는 길에서 이룩하신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민족에게 남긴 고귀한 유산이다.

과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내외조친세력의 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초미의 절박한 과제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집이 타지면 핵참화에 가져올것이 없다. 온 민족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미국과 피뢰당국들의 무력중상과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켜올려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이 그 무슨 《4차체제》이니, 《도발》이니 하고 요란히 떠들며 평화공화국체제와 군사적도발소동을 합리화하려는것은 어리석은짓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며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장본인은 미국과 남조선피뢰당국이다. 미국과 피뢰들은 아무리 발악해도 대화과피자, 평화유린자, 전쟁광산자로서의 저들의 흉악한 정체를 가려올수 없다. 도발자들의 망동을 저들의 수지스러움 파멸만을 촉진시키게 될것이다.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민족공동의 재부이다. 적대세력이 우리의 존엄과 체제, 병진로선을 제아무리 악랄하게 헐뜯어도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억세게 전진하는 우리의 앞길을 결코 가로막을수 없다. 우리는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의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을 선군의 위력으로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릴것이다.

최후의 승리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6.15의 기치높이 하나로 굳게 뭉쳐 힘차게 투쟁해나가는 우리 민족에게 있다.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어있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굳어진 겨레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기에 민족의 세기적속망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태양의 빛따라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함으로써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을 앞당겨오는 우리 민족의 확고부동한 신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모잠비끄공화국 대통령이 선물을 드리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아르만두 에밀리우 게부자 모잠비끄공화국 대통령이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안도노우 이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기구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기구에서 보도하였다. 중국 기구 보도 망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조선소년단창립 68돐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에 높이 모신 김정일정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동상을 꽃다발을 드리고 인사를 올리시였으며 6.6절을 쇠고있는 학원의 교직원, 원아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그리고서는 만경대혁명학원은 명실공히 김일성정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학원이며 혁명가들의 영원한 고향집이라고 하시면서 학원의 기본입구는 원아들을 혁명위업의 비호를 이어나갈수 있도록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학원에 새로 건설한 종합체육관을 돌아보시였으며 만경대혁명학원과 남포혁명학원 원아들의 배우와 풍류경기를 하시었다. 그리고서는 원아들이 하나같이 꼴 잘하고 튼튼하다고, 원아들의 모습에서 강성조선의 앞날을 그려보게 된다고, 조선혁명가를 대를 이어 더욱 힘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는 신심이 생긴다고 기쁨을 표시하시었다.

그리고서는 책임인군들에게 혁명학원원아들을 잘 돌봐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시었다. 로씨야의 이따르-파스톤신,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루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현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동강과 수중합동장과 대동강과일중합공공장을 돌아보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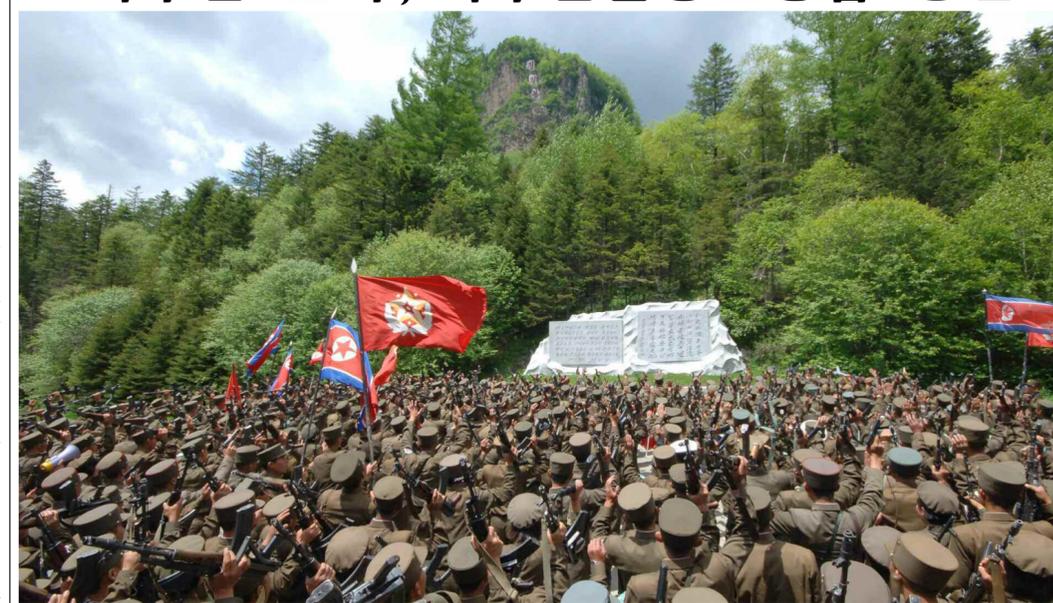
로씨야의 인터넷잡지들이 《한베르 저널》, 《캠퀴》와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현대성그루뵈,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제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 인터넷홈페이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풍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신 소식, 평양에유원지를 찾으신 소식, 평양에유원지를 찾으신 소식, 축적개발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소식, 인민군대에서 새로 제작한 금강하물미끄럼대를 보신 소식을 올렸다.

중국, 로씨야, 브라질, 지역기구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3일부터 6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보도망은 김정은령도자께서 대동강과수중합동장과 대동강과일중합공공장을 돌아보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전망대에서 꼴간데없이 펼쳐진 파주의 바다와 산기슭마다에 들어앉은 문화주택들, 문화후생시설들을 부감하시며 한쪽의 그림자처럼 아름다운 사회주의무용도인, 인민의 리상촌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리고서는 과일생산을 늘이는데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대동강과수중합동장에 조성된 파수발전력이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자면 과일의 정

보당수확고를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대동강과일중합공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경영활동을 개선하셔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리고서는 공장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가공품을 안겨주시기 위해 마음쓰시던 김정은령도자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울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며 각종 과일가공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고 그 질과 위생안전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었다. 중국의 홍콩 방송위성TV방송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이란신문 《이란 뉴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과학자휴양소건설장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신 데 대하여, 평양에유원지를 찾으신 소식, 축적개발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소식, 인민군대에서 새로 제작한 금강하물미끄럼대를 보신 소식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백두산 도착, 백두산밀영교향집 방문



【산지연 6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가 13일 새벽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다. 답사행군대원들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들인 《김정일정군의 노래》, 《김정일정군의 노래》와 《백두의 딸 조국애국애》, 《혁명무력은 원수님 명도 받든다》 등의 노래와 합창에서 백두의 넋을 상징에 새겨안으며 선군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걸어갈 혁명적기개를 잘 보여주었다.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 만장약된 백두산총대로 경애하는 용사들여 답사행군대원들은 총대를 높이 추켜들고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을 올렸다. 김정은혁명정군의 무적필승의 기치를 백두산정에 차민치는 가운데 군중들의 대합창이 진행되었다. 답사행군대원들은 위대한 선군정령들을 모시어 영원한 수령부, 장군부, 태양부, 자랑하여 만방에

빛을 뿌리는 강성조선의 장엄한 모습을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태양》의 시구절을 따라 토로하였다. 답사행군대원들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들인 《김정일정군의 노래》, 《김정일정군의 노래》와 《백두의 딸 조국애국애》, 《혁명무력은 원수님 명도 받든다》 등의 노래와 합창에서 백두의 넋을 상징에 새겨안으며 선군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걸어갈 혁명적기개를 잘 보여주었다.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 만장약된 백두산총대로 경애하는 용사들여 답사행군대원들은 총대를 높이 추켜들고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을 올렸다. 김정은혁명정군의 무적필승의 기치를 백두산정에 차민치는 가운데 군중들의 대합창이 진행되었다. 답사행군대원들은 위대한 선군정령들을 모시어 영원한 수령부, 장군부, 태양부, 자랑하여 만방에

태양의 성지에 도착한 답사행군대원들은 조선의 제일봉으로 거연히 솟아 빛나는 정일봉을 우러르며 경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들은 먼저 백두산밀영에 모신 백두산3대장군의 모자이크벽화에 꽃바구니와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소백수풀에 자리잡은 사령부 기를집을 찾은 그들은 위대한 철세위인들의 위대성유변모임을 진기부러 이곳을 조선혁명의 핵원지로 정하고 전반적인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양양으로 이끄신 불멸의 학정을 가슴깊이 체득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백두산평명으로 솟아오르시여 항일의 대진 총포성을 자랑가로 들으시며 선군정령들을 들으셨다. 답사행군대원들은 력사의 집에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인이시여로 백두의

기상과 담력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라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품소 지으신 송시비와 향일의 녀성영을 김일성동지께서 사옹하신 박우물과 손수 쓰신 혁명적구호문들을 돌아보았다. 백두산밀영교향집 앞에서 철세위인들의 위대성유변모임을 진기부러 이곳을 조선혁명의 핵원지로 정하고 전반적인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양양으로 이끄신 불멸의 학정을 가슴깊이 체득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백두산평명으로 솟아오르시여 항일의 대진 총포성을 자랑가로 들으시며 선군정령들을 들으셨다. 답사행군대원들은 력사의 집에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인이시여로 백두의

위대한 사상리론으로 세기의 앞길을 밝혀주시어

6월의 하늘가에 주체의 당기가 세차게 나뭇기고있다.
위대하신 당의 정답과 눈부신 자태, 불같이 졸기한 열정속에 비범한 예지와 불변 불류의 명도로 우리 당과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승엄히 어려온다.

위대한 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당, 위대한 시대사상의 조국, 사상과 신념으로 뭉친 군대와 인민...

세계가 경탄하는 이 자랑찬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오늘도 당보에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우리 당과 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적문헌을 정중히 모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영명하신 모습에는 천리해안의 예지와 지칠줄 모르는 정열이 넘치고있다.

우리를수록 사상리론의 거장을 영원한 수령으로 모신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아득 차오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은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이며 혁명 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백전백승의 기지입니다.》

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시대를 낳고 위대한 실현을 낳는다는 드넓은 신념을 지니신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사상리론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오시었다.

당과 혁명의 지도적지침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발전공부화시키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기 위하여 바쳐오신 우리 장군님의 사색과 헌신은 오늘날 천만군민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우리 당과 혁명은 동유럽나라들에서 현대수정주의가 판을 칠 때에도 시대의 앞길을 밝히는 위대한 사상과 로선이 있었기에 사소한 편향이나 탈선을 몰랐고 제국주의련합체력이 매지어 달려들 때에도 필승의 신심드높이 영광의 한길로 즐기차게 달려왔다.

하나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던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맑스와 엥겔스, 레닌의 중요저서를 전면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재평가하시었다.

혁명과 건설전반을 이끄시는 그 바쁜 속에서 로동계급의 100년 사상사를 약 3년반동안에 총화한다는것은 어떤 정치가나 사상가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의 사상리론은 인류의 지성을 뛰어넘었다. 그이께서 당중앙의 불발은 창가에서 때로는 현지지도의 쟁미간에, 달리든 승용차안에서 이어가신 순간순간의 탐독과 사색은 보통사람들이 일생을 바쳐도 그 높이를 이룰수 없고 그 깊이를 닿을수 없는 거창한 발전의 편속이었다.

후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대를 회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맑스와 엥겔스, 레닌의 중요저서를 전면적으로 연구분석하는 일은 실로 방대하였습디다. ...나는 그때 맑스와 엥겔스, 레닌이 쓴 철학저서와 경제학저서를 비롯한 거의 모든 중요저서를 해부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많은 책을 읽었습디다.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리론대회에서 결론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제63(1974)년 2월

어떤 때에는 간단한 표현을 놓고도 며칠 동안 생각하였으며 어떤 표현은 몇달동안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때에는 정말 눈에 꼬박이 서는줄도 모르고 책을 읽었고 목이 쉬도록 토론하였습니다. 점으로 잇을수 없는 독학연구기간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여 당과 인민에게 투쟁의 무기를 마련해주고 자주시대를 창조하시려는것은 우리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도 사상과 탐구의 목표였다.

인류의 넘니와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통한 하신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주제62(1973)년 여름 어느날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제사상을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시켜 부를 때까 이미 성숙되었다고 확인하시었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선포하고 우리 시대를 김일성시대로 부를 결심이라고,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도

그렇고 우리 시대의 이름도 그렇고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시켜 부를 수 있다고 하시며 이런 내용의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로동계급의 수령의 혁명사상은 কে워없이 수령의 후계자에 의하여 정식화되었다. 수령의 혁명위업계승자만이 수령의 사상을 가장 원만히 알고 가장 결격히 고수할수 있으며 가장 풍부히 계승발전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는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그로부터 얼마후인 주제63(1974)년 2월 19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리론대회에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 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에도 독창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출중한 저술능력으로 주제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

한 총서인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집필하시어 우리 혁명과 인류 자주위업의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시었다.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제75(1986)년부터 주제76(1987)년 두해사이에도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움에 대하여》 등 시대성과 독창성, 심오성으로 일관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전진을 반석같이 다지시고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었다.

하기에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탐독한 해외동포화자는 인간은 살아있는 인류력사속에서도 자기를 모르고 장아다, B.C. 5세기에 소크라테스가 《인간이, 너자신을 알라》고 의미심장한 수수께끼를

내놓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풀지 못하였 다. 나는 문헌을 읽고나서 아폴론신전기둥에 새긴 격언을 향해 《신행한 철학가들이여, 그네들은 인간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우리는 김정일명도자님에 의하여 인간을 알았다.》고 웨쳤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리고는 인간의 참모습을 찾아주시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위대한 인간 만세!》를 불렀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사상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상리론사업에서 견지하여 오신 철칙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 1990년대에 세계정치지도와 력량판계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현실적조건에 맞게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신것은 우리 혁명의 력사적지표들을 마련한 획기적인 사면이었다.

주제89(2000)년을 맞는 설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류례없는 시련을

헤치시며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로 이끌어온 선군혁명명도의 자욱마다를 감동깊이 추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십천적투쟁정령은 우리의 선군정치야말로 가장 위력하고 가장 정당한 정치방식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내가 총대를 증시하고 선군정치를 하는 한 우리 나라는 끄떡없습니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는 선군이 라는 말자체가 없었다. 선군혁명리론은 우리 당이 처음으로 제시한 위대한 혁명리론이며 백전백승의 기지이다. 우리 당을 선군 혁명의 향도자로 강화발전시키는데 대한 사상, 선군시대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사상, 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건설리론, 선군정치 방식으로 경제건설을 밀고나갈데 대한 사상 등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내놓은 사상리론 들에는 혁명의 근본요구에 맞게 사상리론 활동을 벌리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승고한 위업적공모가 그대로 구현되어있다.

인민의 지향과 요구라면 어떤 어려운 리론실천문제에도 혁명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의 치열한 정치군사적대결에서 련전승을 이룩하고 조국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치게 되었으며 강성국가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놓게 되었다.

하기에 미국의 VOA 방송은 《김정일명도자의 선군정치야 발전하는 힘의 거대한 폭과 무한대의 깊이를 가늠할수 도 켈수도 없다는데 워싱턴의 비극이 있다.》고 비명을 질렀다.

혁명과 건설의 전환적구면이 마련되는데 맞게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를 강성국가건설의 3대기둥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적업적은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로 빛을 뿌리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에 완벽한 해명을 주는 백과사전적인 사상리론으로, 인류자주위업수행을 힘있게 추동하는 불멸의 대강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오늘 천제적인 사상리론가이시며 회세의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명도를 따라 우리 조국땅에는 최후승리로 호향한 말구름소리가 높이 울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운 주제 100년대전군건설에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최후승리의 표대를 마련해주시었다.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강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으며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할데 대한 사상,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데 대한 사상을 비롯한 불멸의 사상리론적지침을 마련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당은 선군혁명의 강위력한 참모부로서 더욱 존엄발전시키고있다.

사상리론의 대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혁명과 건설에 쌓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사상 리론적업적은 세기를 이어 빛난다.

본사기자 정 선 철
본사기자 리 금 분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재부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오신 전기간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일로 중시하신 문제가 바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다.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위력한 추동력이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1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심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갈데 대한 력사적인 담화를 하시었다.

우리의 단결은 일심단결이라고, 우리 당은 일심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었고, 자신께서는 영광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때부터 일심단결을 혁명의 무기로 튼튼히 틀어쥐었다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열정에 넘치신 어조로 일심단결은 자신의 혁명철학이라고 힘있게 선언하시었다.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철학이 세상에 공포되는 력사적순간이었다.

들어켜보면 하나의 중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헌생을 갱그리 바치시어 조국 현상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입니다.》

새벽이슬을 걸어내며 저 하늘의 태양이 따스한 빛발로 대지를 포근히 품어안는 6월의 아침이었다.

사람들의 물결속에서 출근길을 재촉하던 나의 귀전에 《그리움은 풀이 없는데》은은한 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그 구절구절이 승엄한 격정을 불러오는듯 불현듯 위재결에서 만났던 대동

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라고, 일심단결의 위력은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고 역풍을 순풍으로 돌려세울수 있으며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나갈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맞설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강조하시었다.

바로 거기에 그러했듯처럼 앞으로로 일심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 그의 절정이 천만군의 무기에 실려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안겨왔다.

그후 창작가들이 올린 노래 《조선의 모습》을 들으시고 노래가 아주 좋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작품에 일심단결의 힘으로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고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칙의 의지가 잘 반영되었다는 데 대하여 이야기하시었다.

수령, 당, 대중이 위대한 사상과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군계 동처진 우리의 일심단결은 어버이장군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어 마련해주신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재부이다.

본사기자 한 영 민

거들 배를주신 우리 어버이, 그 사랑과 은총에서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성장하였다. 그래서 친근한 어머니께서 주시고주시는 어머니의 미소와 그리움으로 남았다. 그래서 이 나라 천만자식들의 심장속에 자리잡고있는 조선의 대고조적전장들마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해나가는 힘의 원천으로 되었다.

인민의 어버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그것은 그대로 전사, 제사된 도리를 지켜 장군님께서 가리키신 오직 한길을 따라 끝까지 가고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총정의 맹세, 피끓는 심장의 메아리가 되어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낳고있는것이다.

인민의 어버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그것은 그대로 전사, 제사된 도리를 지켜 장군님께서 가리키신 오직 한길을 따라 끝까지 가고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총정의 맹세, 피끓는 심장의 메아리가 되어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낳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단결이라고 외우고 또 외우는것이었다.

경총행사가 끝난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학예술부문의 창작가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이에 대하여 들려주시었다.

그이의 이야기를 들은 창작가들은 마음속으로 환상을 읊었다. 바로 거기에 그러했듯처럼 앞으로로 일심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 그의 절정이 천만군의 무기에 실려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안겨왔다.

그후 창작가들이 올린 노래 《조선의 모습》을 들으시고 노래가 아주 좋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작품에 일심단결의 힘으로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고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칙의 의지가 잘 반영되었다는 데 대하여 이야기하시었다.

수령, 당, 대중이 위대한 사상과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군계 동처진 우리의 일심단결은 어버이장군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어 마련해주신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재부이다.

본사기자 한 영 민

거들 배를주신 우리 어버이, 그 사랑과 은총에서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성장하였다. 그래서 친근한 어머니께서 주시고주시는 어머니의 미소와 그리움으로 남았다. 그래서 이 나라 천만자식들의 심장속에 자리잡고있는 조선의 대고조적전장들마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해나가는 힘의 원천으로 되었다.

인민의 어버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그것은 그대로 전사, 제사된 도리를 지켜 장군님께서 가리키신 오직 한길을 따라 끝까지 가고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총정의 맹세, 피끓는 심장의 메아리가 되어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낳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령도자와 인민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랑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주제90(2001)년 여름 어느날이었다. 외국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었다.

《나는 로씨야를 방문하는 전기간 조국과 인민을 한시도 잊어본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오래동안 가있으니 조국과 인민이 무척 그리웠습디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을 잊을수가 없었습니다. 조국의 사랑하는 모든것이 다 그리웠습디다.》

그이의 음성은 몹시 갈라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씨야를 방문하시는 기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얼마나 장군님을 그리워 하였는지

본사기자 한 영 민

한 만 군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온 세상에 존엄떨치는 우리 당에 대하여 국제사회계가 한목소리로 칭송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선인민이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있는것은 결코 상징적인것이 아니라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이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최후승리를 향하여 총진군하고있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김정일총비서의 사상리론은 절대불변의 진리로,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되고 있다

본사기자

하며 그이께서 돌아오시기를 학수고대하였던가. 생각만 하여도 눈물이 젖어들었다. 열광의 환호를 울리며 조국으로 돌아오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맞이하던 잊지 못할 그날도 삼삼히 어려웠다.

조국에서는 전제 인민이 내가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울을 잘하였다고, 이번에도 우리 나라에서는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라는것을 온 세상에 힘있게 시위하였다고 조용히 이야기 계속하시는 우리 장군님, 반이인물수록 가슴이 후두워 올랐다.

그이께서 로씨야를 방문하시는 기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그 많은 일을 하기 위하여 헌신 하였다고 말씀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시었다.

《내가 로씨야에 가있으면서 조국인민들을 생각하며 로씨야에 가있는 나를 생각하며 그리워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입니다.》

본사기자 림 정 호

세계를 감동시킨 조선인민의 눈물, 그 의미는 무엇인가.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걸출한 위인이신 김정일명도자는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나라의 명도자 이실뿐 아니라 한순간도 그 품 떠나 살수 없는 자애로운 어버이 이시었다. 조선인민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이룬 조선 사회의 일심단결의 정화였다. 이런 인민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조선인민은 김정일명도자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그의 사상과 위업을 끝까지 실현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승수와 행동하면서 한평어리로 굳게 품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위대한 장군님과 우리 인민들이 하나로 융합되어 주체 위업완성을 위해 투쟁해가는 이 하나의 승결이, 이 하나의 움직임은 혼연일체라는 어휘가 없다면 표현하지 못할것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의 혼연일체에 대하여 벅다른 몹시 부러워하고 적들은 대단히 무서워한다고 하시며 우리는 앞으로 도 령도자와 군대, 인민이 일심 단결하여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더 철결같이 다져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천만의 군인이 하나로 승수며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힘.

세한 폭풍 몰아쳐도 흔들림 없게 새가 바뀌어도 변함없을 우리의 일심단결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본사기자 림 정 호

세계를 감동시킨 조선인민의 눈물, 그 의미는 무엇인가.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걸출한 위인이신 김정일명도자는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나라의 명도자 이실뿐 아니라 한순간도 그 품 떠나 살수 없는 자애로운 어버이 이시었다. 조선인민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이룬 조선 사회의 일심단결의 정화였다. 이런 인민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조선인민은 김정일명도자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그의 사상과 위업을 끝까지 실현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경제강국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

청천강전역이 지켜본다, 공격 또 공격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전선이 대안평에 펼쳐지고있다. 단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10여대의 발전설비를 생산보장해야 하는 어려운 전투과업이 대안중기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어깨에 무겁게 실려있다. 그 방대한 생산과제를 분기별로 무조건 수행하기 위해 총력기해나선 대안평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공격전의 나날로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며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안중기연합기업소의 로동계급

발전설비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중요자재들이 계획했던 날자보다 기업소에 늦게 도착하였다. 그로 하여 치차처럼 맞물려 있던 발전설비생산일정은 압축될대로 압축되었다. 첫 전투목표로 6월말까지 내세웠던 4대의 발전설비생산을 할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물음 앞에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결연히 떨쳐나섰다. 《혁명적인나날 맹세보다 실천으로, 결과로!》, 발전설비 1가공 직장현장에 나쁜 속보판의 이 글발이 그대로 대안로동계급의 결사관철의 구호로, 실천으로 이어졌다. 기업소의 책임일군들부터가 당일에 결의다짐 날자를 드릴수 없다는 결사의 각오를

만약약하였다. 생산지휘일군들은 물론 행정, 업무, 후방부문과 당위원회 일군들이 발전설비 대상별, 부속품별 로동계급을 책임지고 전투과제를 차지하였다. 무조건 하자고 결심한 사람에게는 결의보인다고 발전설비생산총합 직장의 책임기사는 얼마전까지만 3호발전소 발전기의 핵심부속품소재를 끝내 찾아내어 발전기생산결속을 위한 또 하나의 돌파구를 열어놓아야만 하였다. 타민생산의 중요소재를 맡은 대형기계직장의 일군이 기적창조의 열매를 맺었고있다.

직장장 김석, 작업반조일군들인 주성천, 최태동동무들의 창조적사색과 탐구가 합쳐지는 순간 그들은 자기들의 육체적부담을 생각하기 전에 다른 한두 시간이라도 연막시간만 앞당기면 그만이었다. 낮과 밤을 이어 연막에서 힘차게 뛰어나는 불꽃들을 원수의 머리에 쏟아붓는 불꽃들이 그 길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하여 종전에 다섯달이상 걸리던 작업날개연막작업량을 불과 40일도 안되어 끝내는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타민조립기업을 보장할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지난 5월말에 지난 시기 기업소의 한해주요생산량보다 더 많은 각종 주공품을 생산하여 최고생산기록을 세운 주공직장의 김인선직장장과 안남수, 박광국, 최명희, 리명남동무들도 이달중 10여대의 발전설비생산에 필요한 주공품생산을 기본적조로 결속하기 위한 마지막공격전에 용감 떨쳐나섰다.

지난 13일 새벽 또 한차례 붉은 쇠물이 쏟아지는 주공직장 용해현장에서 우리와 만난 부지배인 김봉철동무는 말했다. **《지금 우리 대안로동계급의 신장의 열기는 저 붉은 쇠물보다 더 뜨겁습니다. 발전설비생산은 넘버라발, 바로 이것이 청천강우수와 함께 청천강안에서 전력생산의 동맥이 울릴 구름을 앞당겨가는 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애국충정의 대답입니다.》**

글 쓴사기 리명준 사인 쓴사기 전성남

남 흥 청년 화학 연합 기업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위해 한 수렁만큼 사투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제재를 발표하신 50분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주체비료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병기장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야겠다. 이들은 지난 1.4분기 비료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데 이어 4월과 5월에도 말겨니 비료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최근에만도 기업소에서는 매일 지난해 같은 시기를 배나 뛰어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기업소에서는 이룩한 혁신적성과는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곧바로 서

서창청년관공이 석탄생산투쟁을 앞장서고있다. 한두개의 갱이나 채탄중대, 굴진소대들에서만 혁신이 창조되지 않는다. 올해의 전투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고야말겠다는 이 곳 일군들과 탄부들의 결사의 각오와 의지가 그대로 석탄생산의 장엄한 포성으로 메아리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적극 늘리고 철도운수를 비롯한 교통수송물자를 결정적으로 풀며 전력, 석탄, 철도운수 부문에서 현대적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주체비료생산 최고실적 기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위해 한 수렁만큼 사투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제재를 발표하신 50분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주체비료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병기장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야겠다. 이들은 지난 1.4분기 비료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데 이어 4월과 5월에도 말겨니 비료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최근에만도 기업소에서는 매일 지난해 같은 시기를 배나 뛰어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기업소에서는 이룩한 혁신적성과는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20여일만에 또 한척의 짐배를 무었다

신 의 주선박공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초산군에서

초산군에서 중소형발전소건설을 계속 힘있게 내밀어 군의 전력수요를 자체로 보장하는데서 좋은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이며 전력생산을 늘이는것은 오늘 나라의 경제전반에서 일대 양상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건적문제로서 나서는 과제입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의 일군들은 초산청년 1호발전소를 건설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초산청년 2호발전소를 편이 일떠세웠다. 그리하여 군적으로 필요한 전력수요를 자체로 보장할수 있는 발전능력이 조성되게 되었다.

군지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초산청년 1호, 2호발전소는 군의 지방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지금 군에서는 자체로 생산한 전기로 세멘트공장, 화학공장, 장공장을 비롯한 10여개 기업이 지방공업공장과 직리, 양토, 구형농동농장을 비롯한 군의 협동농장들의 양수동력

을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군에서는 소재지의 가로등은 물론 영호각, 국수집, 은덕원 등 비롯한 봉사망들과 군공기판들, 수습동의 다층발전집들에 특색있게 내놓는 불장식에 요구되는 전기도 중소형발전소들에서 생산한 전기로 보장하고있다. 군중배전소에서는 초산청년 1호, 2호발전소와 긴밀한 연계를 가지면서 변전소의 배전반별 피과조작을 짜고들어 군안의 주민세대들과 인민소비품생산을 맡고 있는 지방병원, 보건, 교육부분 등 여러 단위들의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고있다. 이와 함께 협동농장들에서의 농기계수리보수도 계획적으로 하고있다. 군의 현실은 물이 흐르는 곳마다 중소형발전소들을 일떠세울데 대한 당정책이 얼마나 정당하고 생활력있는가를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에서는 전력수요를 자체의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보다도 한층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자력으로 전력수요 보장

초산군에서 중소형발전소건설을 계속 힘있게 내밀어 군의 전력수요를 자체로 보장하는데서 좋은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이며 전력생산을 늘이는것은 오늘 나라의 경제전반에서 일대 양상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건적문제로서 나서는 과제입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의 일군들은 초산청년 1호발전소를 건설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초산청년 2호발전소를 편이 일떠세웠다. 그리하여 군적으로 필요한 전력수요를 자체로 보장할수 있는 발전능력이 조성되게 되었다.

군지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초산청년 1호, 2호발전소는 군의 지방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지금 군에서는 자체로 생산한 전기로 세멘트공장, 화학공장, 장공장을 비롯한 10여개 기업이 지방공업공장과 직리, 양토, 구형농동농장을 비롯한 군의 협동농장들의 양수동력

을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군에서는 소재지의 가로등은 물론 영호각, 국수집, 은덕원 등 비롯한 봉사망들과 군공기판들, 수습동의 다층발전집들에 특색있게 내놓는 불장식에 요구되는 전기도 중소형발전소들에서 생산한 전기로 보장하고있다. 군중배전소에서는 초산청년 1호, 2호발전소와 긴밀한 연계를 가지면서 변전소의 배전반별 피과조작을 짜고들어 군안의 주민세대들과 인민소비품생산을 맡고 있는 지방병원, 보건, 교육부분 등 여러 단위들의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고있다. 이와 함께 협동농장들에서의 농기계수리보수도 계획적으로 하고있다. 군의 현실은 물이 흐르는 곳마다 중소형발전소들을 일떠세울데 대한 당정책이 얼마나 정당하고 생활력있는가를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에서는 전력수요를 자체의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보다도 한층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학습강사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천천명에 달하는 사상일군들만 잘 준비되어있어도 강력한 선군대안을 편성할수 있으며 이 력이면 무서울 것도 없고 못배일 일도 없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신 의 주선박공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전민족이 단결하여 정의의 통일애국성전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자

6.15 통일시대의 개척자, 위대한 령도자

은 삼천리강도가 통일에 대한 환희와 열기로 세차게 끓어받았던 때로부터 어느덧 14년이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14년전인 주제 89(2000)년 6월 15일, 온 지구를 뒤흔든 북남수뇌분들의 감격적인 상봉과 우리민족끼리러움을 핵으로 하는 북남공동선언의 회상은 조국통일운동에 특기할 민족사적사건이었다. 그것은 기나긴 민족분열사 해방투쟁 종지부를 찍고 민족단합과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위대한 결실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 북남공동선언은 민족대 단결과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주제 89(2000)년 3월, 조국통일의 전향적국면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끝없는 사색과 탐구의 심혈을 기울이시

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몸소 눈보라치는 백두산지구를 찾으셨다. 우리 장군님께서 백두산의 눈바람을 맞으며 생각하신것은 민족의 운명, 나라의 통일문제였다. 20세기를 마감하는 올해를 분렬을 끝장내고 민족의 이름을 옹기 위해서는 중대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이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어 분렬과 대결의 북남관계를 극적으로 돌려세우고 조국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실 대우단을 내리셨다.

돌이켜보면 조국통일의 분수령을 이룬 력사의 순간을 마련하시어 우리 장군님께서 기울으신 로고와 심혈은 그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에는 언제나 조국통일론자가 자리잡고있었고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산을 기어이 실현하시어 역사의가 맥박치고있었다. 하기에 주체도 가슴에는 1990년대의 피눈물의 나날 그 누구보다 크나큰 상실의 아픔에 휩싸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

사의 땅 판문점을 몸소 찾으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새겨진 불멸의 천리비알에서 오메도록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시며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시려는 맹세를 다지셨지 아니랴. 그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0년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통일운동에서 자주적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던 말씀은 통일을 갈망하는 겨레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여기에는 2000년을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의 해로 빛내시려는 그이의 철철의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바로 그 결단, 그 신념을 안으시고 새 세계 통일의 불우를 삼천리가 진동하도록 울려주시어 백두산지구를 찾으셨던 것이다. 이리하여 주제 89(2000)년 4월 력사적인 북남수뇌분들의 평양상봉과 남북최고위급회담을 오는 6월 15일에 힘차게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

사의 땅 판문점을 몸소 찾으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새겨진 불멸의 천리비알에서 오메도록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시며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시려는 맹세를 다지셨지 아니랴. 그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0년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통일운동에서 자주적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던 말씀은 통일을 갈망하는 겨레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여기에는 2000년을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의 해로 빛내시려는 그이의 철철의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바로 그 결단, 그 신념을 안으시고 새 세계 통일의 불우를 삼천리가 진동하도록 울려주시어 백두산지구를 찾으셨던 것이다. 이리하여 주제 89(2000)년 4월 력사적인 북남수뇌분들의 평양상봉과 남북최고위급회담을 오는 6월 15일에 힘차게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

사의 땅 판문점을 몸소 찾으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새겨진 불멸의 천리비알에서 오메도록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시며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시려는 맹세를 다지셨지 아니랴. 그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0년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통일운동에서 자주적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던 말씀은 통일을 갈망하는 겨레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여기에는 2000년을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의 해로 빛내시려는 그이의 철철의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바로 그 결단, 그 신념을 안으시고 새 세계 통일의 불우를 삼천리가 진동하도록 울려주시어 백두산지구를 찾으셨던 것이다. 이리하여 주제 89(2000)년 4월 력사적인 북남수뇌분들의 평양상봉과 남북최고위급회담을 오는 6월 15일에 힘차게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

사의 땅 판문점을 몸소 찾으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새겨진 불멸의 천리비알에서 오메도록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시며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시려는 맹세를 다지셨지 아니랴. 그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0년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통일운동에서 자주적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던 말씀은 통일을 갈망하는 겨레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여기에는 2000년을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의 해로 빛내시려는 그이의 철철의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바로 그 결단, 그 신념을 안으시고 새 세계 통일의 불우를 삼천리가 진동하도록 울려주시어 백두산지구를 찾으셨던 것이다. 이리하여 주제 89(2000)년 4월 력사적인 북남수뇌분들의 평양상봉과 남북최고위급회담을 오는 6월 15일에 힘차게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

사의 땅 판문점을 몸소 찾으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새겨진 불멸의 천리비알에서 오메도록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시며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시려는 맹세를 다지셨지 아니랴. 그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0년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통일운동에서 자주적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던 말씀은 통일을 갈망하는 겨레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여기에는 2000년을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의 해로 빛내시려는 그이의 철철의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바로 그 결단, 그 신념을 안으시고 새 세계 통일의 불우를 삼천리가 진동하도록 울려주시어 백두산지구를 찾으셨던 것이다. 이리하여 주제 89(2000)년 4월 력사적인 북남수뇌분들의 평양상봉과 남북최고위급회담을 오는 6월 15일에 힘차게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겨가고있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관에서—

반통일세력의 발악적책동으로 북남대결이 첨예화되고 전쟁위험이 질어갈수록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파도쳐오는 소중환 추적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6.15 통일시대의 잊지 못할 날들이다.

분렬의 원천서린 삼천리강도에 화해와 단합의 불빛을 뿌려주고 민족의 통일열기를 한껏 북돋아준 6.15 통일시대! 반세기이상의 대결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온 6.15 공동선언의 발표로 북과 남의 거메들사이에는 서로 피가 통하고 고였던 정과 열이 흐르기 시작했으며 백두에서 한나까지 삼천리강도에는 통일의 환희가 끓어올랐다.

6.15 공동선언발표로 대화와 협력, 대량과 교류의 좁은 길이 열리고 북남관계개선을 조국통일운동의 전향적국면을 맞이하였다.

평양과 서울, 금강산에서는 6.15와 8.15를 비롯한 주

요기념일마다 북과 남, 해외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민족의 통일지기를 만천하에 파시하였다. 그 나날들에는 통일의 마시초리 힘있게 울려가는 긍지를 안고 열세안고 총아라 돌아가던 북과 남의 로동자들과 통일된 새 땅에서 발걸음 품을 농약무에 담아 펼치던 농민들, 통일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 불태우던 북과 남의 청년학생들의 모습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6.15가 밝혀준 통일의 길을 따라 북과 남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듬아래 수십치의 상공회담과 10여치의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를 비롯하여 수백에 달하는 회담과 접촉, 교류, 공동행사를 통해 통일지기를 잇으며 민족의 통일지기를 반영한 좋은 합의들을 이루어냈다.

배걸을 통한 금강산관광이 폭로를 통한 판광길로 넓혀지고 통일육교 교로의 수도였던 개성시에 공업지구가 건설되어 경제협력의 동력을 높이 올린 경이적인 사변들은 지금도 아예일어난 듯 생생히 안겨온다.

어디 그뿐인가.

제주도에서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이 진행되고 백두산과 한나산에서 제화된 성화가 하나로 합쳐져 부산과 제주도의 경기장분화대에 통일의 화불로 타올라 만사람을 감동시켰다. 서로 만나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칠 때 겨레의 심정에 뉘러졌고 백두에서 울기내린 이 땅도 하나, 피죽도 언어도 문화도 하나,

우리 민족은 갈라져살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임을 온몸으로 절감한 갈라져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2005년 북과 남, 해외의 정당, 단체, 인사들을 촉발시켜 망라한 전민족적통일운동기구인 6.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6.15민족공동위원회)가 결성된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사변이었다. 6.15민족공동위원회의 결성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남, 해외의 조직적인 연대연합이 이전에 비해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북과 남, 해외의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은 6.15민족공동위원회를 모체로 하여 공동선언리행을 위한 통일애국투쟁을 거족적으로 벌여나갔다.

6.15 통일시대를 체현하면서 우리 겨레는 누구나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 판계개선을 위한 통일이 결코 남지 못할 협상준비가 아니냐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확인이 있었기에 6.15 공동선언리행을 위한 투쟁은 지난 14년간 어느 한시도 중단될적이 없었으며 위대한 종지부러움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한나까지 애국리념으로 자리잡고있는것이다.

6.15와 더불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온 조국통일운동은 우리 겨레가 공동선언이 가리키는 대로 우리 민족끼리의 리듬아래 굳게 단합하여 투쟁한다면 이 세상에서 두려울것도 못낼것도 없다가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장 준 남

이제 온 겨레는 6.15 통일시대를 그리워하며 하루빨리 북남관계가 개선되어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새 국면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아직 실현하지 못하고있으며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의 앞길에는 의외히 커다란 난관과 시련이 겹잡고있다.

박근혜대통령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왔을 후 6.15 통일시대의 북남관계는 '일반상식과 국제기준에 맞게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공중》과 《공유》이니 뭐니 하면서 비방증상에 매달리는 것으로 저들의 대결적정체를 드러내놓았다. 우리가 날로 악화되는 북남관계과국을 막고 겨레의 지향에 맞게 6.15 통일시대를 이어나가기 위해 당국회담을 제의하는 등 대변하고 아망있는 조치를 여러번 취하였지만 그대마다 피피대당은 《적에 맞는 대화》, 《진정성》이니, 《남남갈등》이니 하는마위의 열도탕탕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면 서 대화자세를 부정하였다.

나중에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통일대박론》이라는것을 들고나와 북남공동선언을 로골적으로 거부해나갔다.

6.15 공동선언을 대하는 피피대당의 이러한 필장과 자세로 하여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리명박에도

의 집권시기와 조금도 다를바 없는 반 6.15 정책으로 로골적으로 감행되고있는것이다.

한층도 안되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으로 북남사이에는 전쟁위험이 질어가고 우리 민족은 고통과 불행만 당하고있다.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며 대결과 전쟁밖에 차레책리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현실은 6.15 공동선언을 거부하고 그 리행을 달가와 하지 않는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있는 한 언제 가도 민족의 지향은 실현될수 없고 대결과 불신의 폭탄 괴저를 재산을 당할수 있다는 교훈을 되새겨주고있다.

오늘 반통일세력의 책동이 우심해질수록 6.15 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우리 겨레의 의지는 날로 더욱 굳세어지고있다.

지난 5월 1일에 발표된 북남로동자단체 공동결의문은 파강한 투쟁으로 6.15 공동선언을 기어이 리행하고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북과 남의 로동자들은 공동결의문에서 자랑스럽고 긍지높이 6.15 통일시대를 회고하면서 6.15 공동선언이야말로 자주통일을 추동하는 민족성적이고 원동력이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라는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을 비롯한 각계 단체들은 6.15 공동선언발표 14돐에 즈음하여 다양한 행사들을 열고 집권세력의 반 6.15 책동을 신랄히 비판하면서 투쟁으로 공동선언을 리행하려는 결사의 각오를 리행하고있다. 지난 12일에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분부가 《통일 6.15 이 길을 찾다》라는 주제의 학술토론회를 가지었으며 남조선로동자총연맹, 민주로동조합총연맹, 농민총연맹 등 단체들은 북남협력을 위한 《후원의 반향

정신에 기초한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박근혜대당이 리명박적책대당의 반 6.15 책동과 그로 하여 초래된 북남관계과국, 전쟁위험에서 교훈을 찾아대신 남조선인민의 6.15 지지기운을 말할해보려고 기승을 부리지만 그것은 저들의 통치위기와 대중적인 반《정권》투쟁만을 불러오는 어리석은짓이다.

그 무엇보다도 6.15 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으로 나아가는 민족사의 흐름을 멈춰세울수 없다.

본사기자 은 정 철

우리 민족끼리 나날을 살아가고 있다.

분렬의 원천서린 삼천리강도에 화해와 단합의 불빛을 뿌려주고 민족의 통일열기를 한껏 북돋아준 6.15 통일시대! 반세기이상의 대결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온 6.15 공동선언의 발표로 북과 남의 거메들사이에는 서로 피가 통하고 고였던 정과 열이 흐르기 시작했으며 백두에서 한나까지 삼천리강도에는 통일의 환희가 끓어올랐다.

6.15 공동선언발표로 대화와 협력, 대량과 교류의 좁은 길이 열리고 북남관계개선을 조국통일운동의 전향적국면을 맞이하였다.

평양과 서울, 금강산에서는 6.15와 8.15를 비롯한 주

요기념일마다 북과 남, 해외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민족의 통일지기를 만천하에 파시하였다. 그 나날들에는 통일의 마시초리 힘있게 울려가는 긍지를 안고 열세안고 총아라 돌아가던 북과 남의 로동자들과 통일된 새 땅에서 발걸음 품을 농약무에 담아 펼치던 농민들, 통일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 불태우던 북과 남의 청년학생들의 모습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6.15가 밝혀준 통일의 길을 따라 북과 남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듬아래 수십치의 상공회담과 10여치의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를 비롯하여 수백에 달하는 회담과 접촉, 교류, 공동행사를 통해 통일지기를 잇으며 민족의 통일지기를 반영한 좋은 합의들을 이루어냈다.

배걸을 통한 금강산관광이 폭로를 통한 판광길로 넓혀지고 통일육교 교로의 수도였던 개성시에 공업지구가 건설되어 경제협력의 동력을 높이 올린 경이적인 사변들은 지금도 아예일어난 듯 생생히 안겨온다.

어디 그뿐인가.

제주도에서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이 진행되고 백두산과 한나산에서 제화된 성화가 하나로 합쳐져 부산과 제주도의 경기장분화대에 통일의 화불로 타올라 만사람을 감동시켰다. 서로 만나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칠 때 겨레의 심정에 뉘러졌고 백두에서 울기내린 이 땅도 하나, 피죽도 언어도 문화도 하나,

우리 민족은 갈라져살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임을 온몸으로 절감한 갈라져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2005년 북과 남, 해외의 정당, 단체, 인사들을 촉발시켜 망라한 전민족적통일운동기구인 6.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6.15민족공동위원회)가 결성된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사변이었다. 6.15민족공동위원회의 결성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남, 해외의 조직적인 연대연합이 이전에 비해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북과 남, 해외의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은 6.15민족공동위원회를 모체로 하여 공동선언리행을 위한 통일애국투쟁을 거족적으로 벌여나갔다.

6.15 통일시대를 체현하면서 우리 겨레는 누구나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 판계개선을 위한 통일이 결코 남지 못할 협상준비가 아니냐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확인이 있었기에 6.15 공동선언리행을 위한 투쟁은 지난 14년간 어느 한시도 중단될적이 없었으며 위대한 종지부러움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한나까지 애국리념으로 자리잡고있는것이다.

6.15와 더불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온 조국통일운동은 우리 겨레가 공동선언이 가리키는 대로 우리 민족끼리의 리듬아래 굳게 단합하여 투쟁한다면 이 세상에서 두려울것도 못낼것도 없다가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장 준 남

이제 온 겨레는 6.15 통일시대를 그리워하며 하루빨리 북남관계가 개선되어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새 국면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아직 실현하지 못하고있으며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의 앞길에는 의외히 커다란 난관과 시련이 겹잡고있다.

박근혜대통령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왔을 후 6.15 통일시대의 북남관계는 '일반상식과 국제기준에 맞게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공중》과 《공유》이니 뭐니 하면서 비방증상에 매달리는 것으로 저들의 대결적정체를 드러내놓았다. 우리가 날로 악화되는 북남관계과국을 막고 겨레의 지향에 맞게 6.15 통일시대를 이어나가기 위해 당국회담을 제의하는 등 대변하고 아망있는 조치를 여러번 취하였지만 그대마다 피피대당은 《적에 맞는 대화》, 《진정성》이니, 《남남갈등》이니 하는마위의 열도탕탕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면 서 대화자세를 부정하였다.

나중에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통일대박론》이라는것을 들고나와 북남공동선언을 로골적으로 거부해나갔다.

6.15 공동선언을 대하는 피피대당의 이러한 필장과 자세로 하여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리명박에도

의 집권시기와 조금도 다를바 없는 반 6.15 정책으로 로골적으로 감행되고있는것이다.

한층도 안되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으로 북남사이에는 전쟁위험이 질어가고 우리 민족은 고통과 불행만 당하고있다.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며 대결과 전쟁밖에 차레책리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현실은 6.15 공동선언을 거부하고 그 리행을 달가와 하지 않는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있는 한 언제 가도 민족의 지향은 실현될수 없고 대결과 불신의 폭탄 괴저를 재산을 당할수 있다는 교훈을 되새겨주고있다.

오늘 반통일세력의 책동이 우심해질수록 6.15 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우리 겨레의 의지는 날로 더욱 굳세어지고있다.

지난 5월 1일에 발표된 북남로동자단체 공동결의문은 파강한 투쟁으로 6.15 공동선언을 기어이 리행하고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북과 남의 로동자들은 공동결의문에서 자랑스럽고 긍지높이 6.15 통일시대를 회고하면서 6.15 공동선언이야말로 자주통일을 추동하는 민족성적이고 원동력이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라는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을 비롯한 각계 단체들은 6.15 공동선언발표 14돐에 즈음하여 다양한 행사들을 열고 집권세력의 반 6.15 책동을 신랄히 비판하면서 투쟁으로 공동선언을 리행하려는 결사의 각오를 리행하고있다. 지난 12일에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분부가 《통일 6.15 이 길을 찾다》라는 주제의 학술토론회를 가지었으며 남조선로동자총연맹, 민주로동조합총연맹, 농민총연맹 등 단체들은 북남협력을 위한 《후원의 반향

정신에 기초한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박근혜대당이 리명박적책대당의 반 6.15 책동과 그로 하여 초래된 북남관계과국, 전쟁위험에서 교훈을 찾아대신 남조선인민의 6.15 지지기운을 말할해보려고 기승을 부리지만 그것은 저들의 통치위기와 대중적인 반《정권》투쟁만을 불러오는 어리석은짓이다.

그 무엇보다도 6.15 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으로 나아가는 민족사의 흐름을 멈춰세울수 없다.

본사기자 은 정 철

미국과 피피대당은 위험천만한 미사일방위 체계 구축책동을 당장 걸어치워야 한다

북침 핵전쟁 연습반대 전민족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담화

피피대당이 미국의 고고도 요격미사일(THAAD)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며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에 끌어들이며 미국미사일방위체계에 가담하기 위해 책동해온 범죄적사실이 드러났고 관련하여 지금 온 민족은 치솟는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지금까지 피피대당은 내외의 규탄이 추위를 뒤엎지 못하며 미사일방위 체계 구축을 위해 《THAAD》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는것을 극력 숨겨왔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상선에 의해 이미전부터 그와 관련한 의들이 있었으며 현재 부지조사까지 진행되고있다는것이 확인됨으로써 피피대당의 기만적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었다.

북침 핵전쟁 연습반대 전민족비상대책위원회는 피피대당이 미국과 결탁하여 고고도요격미

사일 《THAAD》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며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에 적극 가담하려는데 대해 우리에게 대한 핵전쟁공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핵전쟁발전을 피피대당이 위한 국안한 범죄행위로 준엄히 단죄구한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 핵전쟁책동은 극도로 이르고있다.

미국은 올해에도 최심핵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북침 핵전쟁 연습을 광범적으로 벌리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정경으로 치닫게 하였다.

지금 미국과 피피대당은 《THAAD》의 남조선배비에 대해 《북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라고 떠들고있으나 그것은 저들의 불순한 기도를 가리키기 위한 파렴치한 궤변에 불과하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핵위협을 가해왔으며 이로써 우리가 지위를 위해 핵위협을 갖추지 않았던 안이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에 대해 《위협》이니 뭐니 하고 떠들며 미사일방위 체계 구축에 필부하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지 아닐 수 없다.

이번엔 폭로된 사실들은 미국과 피피대당이 넘볼수밖엔 없고있는 《북핵 및 미사일위협》이라는것이 결국 《THAAD》와 같은 것을 끌어들이며 미국미사일방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핵전쟁준비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자라는 그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미국과 피피대당의 《THAAD》배비와 미사일방위체

계 구축책동을 절대로 보고있지 않을것이며 민족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으로 단호히 대응해나갈것이다.

고고도요격미사일 《THAAD》까지 배비되면 남조선은 미국의 핵전쟁초기타격대 타격과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 위험이 극도로 이를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그렇게 되면 남조선은 가장 위험한 핵전쟁의 발원지, 세계적 핵전쟁마당으로 될것이며 결국 보복타격대상이 되어 핵참화를 면할수 없게 될것은 남조선이다.

피피대당은 《THAAD》의 배비로 남조선에 핵전쟁위기를 끌어들이는 자멸행위를 필부하는 것을 부끄러워 않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과 피피대당의 《THAAD》배비와 미사일방위체

계 구축책동을 절대로 보고있지 않을것이며 민족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으로 단호히 대응해나갈것이다.

고고도요격미사일 《THAAD》까지 배비되면 남조선은 미국의 핵전쟁초기타격대 타격과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 위험이 극도로 이를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그렇게 되면 남조선은 가장 위험한 핵전쟁의 발원지, 세계적 핵전쟁마당으로 될것이며 결국 보복타격대상이 되어 핵참화를 면할수 없게 될것은 남조선이다.

피피대당은 《THAAD》의 배비로 남조선에 핵전쟁위기를 끌어들이는 자멸행위를 필부하는 것을 부끄러워 않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과 피피대당의 《THAAD》배비와 미사일방위체

계 구축책동을 절대로 보고있지 않을것이며 민족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으로 단호히 대응해나갈것이다.

고고도요격미사일 《THAAD》까지 배비되면 남조선은 미국의 핵전쟁초기타격대 타격과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 위험이 극도로 이를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그렇게 되면 남조선은 가장 위험한 핵전쟁의 발원지, 세계적 핵전쟁마당으로 될것이며 결국 보복타격대상이 되어 핵참화를 면할수 없게 될것은 남조선이다.

피피대당은 《THAAD》의 배비로 남조선에 핵전쟁위기를 끌어들이는 자멸행위를 필부하는 것을 부끄러워 않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과 피피대당의 《THAAD》배비와 미사일방위체

계 구축책동을 절대로 보고있지 않을것이며 민족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으로 단호히 대응해나갈것이다.

고고도요격미사일 《THAAD》까지 배비되면 남조선은 미국의 핵전쟁초기타격대 타격과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 위험이 극도로 이를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그렇게 되면 남조선은 가장 위험한 핵전쟁의 발원지, 세계적 핵전쟁마당으로 될것이며 결국 보복타격대상이 되어 핵참화를 면할수 없게 될것은 남조선이다.

피피대당은 《THAAD》의 배비로 남조선에 핵전쟁위기를 끌어들이는 자멸행위를 필부하는 것을 부끄러워 않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과 피피대당의 《THAAD》배비와 미사일방위체

계 구축책동을 절대로 보고있지 않을것이며 민족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으로 단호히 대응해나갈것이다.

고고도요격미사일 《THAAD》까지 배비되면 남조선은 미국의 핵전쟁초기타격대 타격과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 위험이 극도로 이를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그렇게 되면 남조선은 가장 위험한 핵전쟁의 발원지, 세계적 핵전쟁마당으로 될것이며 결국 보복타격대상이 되어 핵참화를 면할수 없게 될것은 남조선이다.

피피대당은 《THAAD》의 배비로 남조선에 핵전쟁위기를 끌어들이는 자멸행위를 필부하는 것을 부끄러워 않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과 피피대당의 《THAAD》배비와 미사일방위체